

유인촌 139억 1위... 각료중 2명만 10억 미만

■이명박 정부 첫 내각·靑 수석 재산공개

참여정부 마지막 내각보다 평균 재산 10억원 많아
수석 10명 모두 '버블세븐(강남 3구)'에 부동산 소유

■대통령실 재산등록 현황 (단위:천원)

직위	성명	재산가액	
		총재산가액	본인/배우자 (부모, 자녀는 제외)
대통령	이명박	35,474,017	35,437,455
대통령실장	유우익	1,275,029	1,137,085
국정기획수석	박승준	11,003,070	10,933,248
정무수석	박재완	1,012,232	966,134
민정수석	이종찬	3,440,982	3,353,125
외교안보수석	김병국	8,205,741	4,220,230
경제수석	김중수	2,042,442	1,889,531
사회정책수석	박미석	2,598,772	2,598,529
교육과학기술수석	이주호	1,924,217	1,724,922
경총처장	김인중	2,536,529	1,803,103
대변인	이동관	1,526,206	1,490,263

■국무총리·국무위원 재산등록 현황 (단위:천원)

소속	성명	재산가액	
		총재산가액	본인/배우자 (부모, 자녀는 제외)
국무총리	한승수	2,113,410	2,133,410
기획재정부장관	김만수	3,105,526	2,682,745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김도연	1,561,390	1,574,822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2,593,296	2,593,296
통일부장관	김라중	1,353,307	1,353,307
법무부장관	김경환	5,730,704	4,984,594
국방부장관	이상희	843,495	813,183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	2,958,082	2,887,325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14,019,518	13,927,977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정운천	2,704,689	2,704,689
지식경제부장관	이윤호	5,791,667	5,791,667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김성이	1,126,284	1,126,284
환경부장관	이만희	1,815,042	1,658,300
노동부장관	이영희	4,041,526	3,810,848
여성부장관	변도윤	1,395,571	1,395,571
국토해양부장관	정중환	898,823	784,744

‘부자 내각’ 논란 속에 출범한 이명박 정부의 첫 내각 국무위원 16명의 1인당 평균 재산(본인·배우자 소유 기준)이 31억3천800여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참여정부 마지막 내각의 평균 재산(20억9천9천여만원)에 비해 10억원 이상 많은 액수다. 새 정부의 청와대 장·차관급 인사들 역시 최소 10억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의 평균 재산은 약 35억원으로 집계됐다.

빌딩 3개 등 부동산만 368억...사회 환원 검토중

■이명박 대통령 재산 신고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354억7천401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전설적인 대기업 CEO 출신답게 이번엔 신고대상이 된 새 정부 행정부내 최고 재산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재산의 대부분을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재단 설립 등을 통한 사회 환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취임 첫 해 전직 대통령들의 재산은 이와 비교가 어려울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당시 2억552만원을, 김대중 전 대통령은 8억8천686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24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를 통해 공개한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 103명의 신규 재산등록 내역에 따르면 한승수 국무총리와 장관 15명의 평균 재산이 31억3천800여만원으로 집계됐다. 유인촌 문화관광체육부 장관은 139억2천여만원의 재산을 신고해 이명박 정부 초대 내각 각료를 가운데 가장 재산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이 57억9천여만원으로 2위를 기록했으며 김경환 법무부 장관(49억8천여만원), 이영희 노동부 장관(38억1천여만원),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28억8천여만원),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27억원),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26억8천여만원), 유명한 외교통상부 장관(25억9천여만원), 한승수 국무총리(21억3천여만원) 순이었다. 국무위원 16명 중 재산이 10억원 미만인 사람은 정중환 국토해양부 장관(7억8천여

만원)과 이상희 국방부 장관(8억1천여만원) 둘 뿐이었다. 청와대 장·차관급 비서진 10명의 경우 평균 재산은 35억5천652만8천원이며, 토지보유 평균액은 5억1천900여만원, 건물보유 평균액은 20억8천200여만원, 예금은 8억7천900여만원으로 나타났다. 광승준 국정기획수석이 총 110억307만원으로 1위를 기록했으며, 김병국 외교안보수석이 82억574만1천원으로 2위를 달렸다. 그 다음은 ▲이종찬 민정수석 34억98만2천원 ▲박미석 사회정책수석 25억9천877만2천원 ▲김인중 경제수석 20억4천244만2천원 ▲이주호 교육과학기술수석 19억2천421만7천원 ▲이동관 대변인 15억2천620만6천원 ▲류우익 대통령실장 12억7천502만9천원 등의 순이었다. 박재완 정무수석은 10억1천229만2천원을 신고해 최하위에 그쳤다. /연합뉴스



재산 공개에 쏠린 눈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 103명의 신규 재산등록사항을 공개한 가운데 24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행정안전부 직원들이 관보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논문 표절’ 박미석, 이번엔 ‘땅 투기’ 논란

영종도에 논 소유...靑 “작농확인서 있다” 투기 부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4일 공개한 새 정부 고위공직자 재산등록 현황 가운데 청와대 일부 수석비서관들이 농지를 보유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공개된 재산등록 현황에 따르면 박미석 사회정책수석은 배우자 명의로 인천국제공항 옆 영종도에 논 1천353㎡(신고액 1억8천500만원)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곳은 인천시가 지난 2006년 드라마세트장과 각종 영화 산업 관련 시설을 갖춘 영상단지 조성 계획을 발표한 지역으로, 사전 개발정보 입수를 통한 ‘투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 수석의 남편인 이두희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지난 2002년 6월 친구 친척의 권유로 이 논을 1억원에 매입했으며, 현재 신고가액으로만 봤을 때 1억8천

만원에 달해 2배 가까이 오른 셈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토지 매입시점과 영상단지 조성계획 발표 시점이 3년 이상 차이가 난다는 점으로 미뤄 사전 정보인수 의혹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면서 “매입을 권유한 이 교수 친구 친척이 직접 농사를 짓고 있었고, 자정확인서도 갖고 있다”며 의혹을 일축했다. 이동관 대변인도 배우자 명의로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토지(신고액 4천만원 상당)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대변인은 “지난 2004년 11월 언론사(동아일보) 재직 당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아 회사 동료 2명 등과 함께 매입한 것”이라며 “매입자 가운데 한명이 실제 경작을 하고 있었고, 이를 증명하는 영농경작수위탁계약서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정치권 “재산 형성과정 불·탈법 가려야”

여야는 24일 평균 35억원이 넘는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의 재산 공개 현황을 놓고 반응에 온도차를 보였다. 정치권은 일단 내각에 이어 청와대 수석비서관까지 많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자 재산 형성과정에서의 불·탈법 여부를 가려야 한다는데 한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강부자’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도 일단 재산형성과정에 문제가 있는지 지켜보는 입장을 표명한 반면, 통합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청와대 역시 ‘강부자’임이 확인됐다며 재산증식과정에 대한 해명을 촉구하고, ‘강부자’ 정부가 서민을 위한 경제정책을 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재산 형성과정에서의 불법 여부를 지켜봐야 하지만 지금은 아무 것도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이날 열린 최고위회의에서도 당분간 지켜보기로 하는 등 반응을 자제하는 분위기였다. 한 핵심 당직자는 “재산이 많다는 사실만은 문제가 되는 건 곤란하다”면서도 “다만 재산 형성과정이 깨끗이 해명되어야 하며, 문제가 있다면 빨리 정리해주는 것이 당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민주당 차영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역시 강부자 내각 위에는 강부자 청와대가 있었다”며 “땅과 집과 골프 회원권을 사탕하는 분들이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경제정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이번엔 재산 신고를 한 103명의 고위공직자 가운데 영암 출신인 최성룡 소방방재청장의 재산이 4천558만3천원으로 최저를 기록, 관심을 끌었다. 최 청장은 이날 수석비서관들의 자산가가 수두룩한 가운데 유독 자신의 재산이 적는데 대해 주변의 관심이 모아지자 “열심히 일해 (많은) 재산을 모은 다른 공직자들에게 누가 될까 두렵다”면서 말을 아꼈다. 최 청장은 대변인실을 통해 “재산이 많고 적은 것은 그냥 단순한 차이에 불과할 뿐인 만큼 재산이 적다고 관심이 쏠릴 필요가 없다”는 뜻을 전했다.

최성룡 소방방재청장, 재산 4천5백만원 ‘꼴찌’ 눈길

이한주 광주고법 부장판사 1억6천만원 범조계 최저

최 청장의 재산은 광주시 문흥동 아파트 1억1천500만원, 전남 목포시 연산동 아파트 전세임차권 500만원 등 부동산 1억2천만원, 본인과 배우자 예금 101만4천원, 사인간 채권 5천만원 등 외형상 2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금융기관 채무 1억2천543만1천원 때문에 전체 재산은 4천만원이 겨우 넘어 이번 공개대상자 가운데 꼴찌였다. 이에 대해 소방방재청측은 “2남1녀를 교육시키는데 돈이 많이 들어갔다는 청장의 설명”이라며 “특히 막내 아들이 미국에서 의학공부를 하기 때문에 빚을 질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자녀 교육비가 만만치 않은 부담임을 여실히 느끼게 하는 대목이다. 범조계에서는 지난 11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추가 공개한 13명의 고위법관 재산등록에서 이한주 광주고법 부장판사가 1억6천124만원을 신고, 재산이 가장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 부장판사는 아내 명의로 3억2천만원 상당 아파트가 있지만 2억5천여만원의 은행채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공개된 ‘정기 공직자 재산등록 및 변동신고’에서 범조계 꼴찌는 모두 2억3천765만원을 신고한 방극성 광주고법 수석부장판사였다. /연합뉴스

건강 100세를 실현하는 ILDONG 일동제약

“온몸이 나른하고, 의욕은 떨어지고...”
비타민 부족이 춘곤증을 부릅니다!

쉬어도 피로가 증처럼 몰리지 않는 봄... 봄에는 활동량이 늘어나 비타민 소모가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새봄, 몸도 마음도 산뜻하게 맞이하고 싶다면 아로나민 씨플러스! 비타민 B군에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제가 보강되어 피로를 풀어주고, 활기찬 건강과 깨끗한 피부를 지켜줍니다.

항산화제 보강·종합비타민
아로나민 씨플러스

• 활성비타민 B1, B2, B6, B12, C, E, K, P, 판토텐산, 인산염, 칼슘, 마그네슘, 아연, 셀레늄, 크롬, 구리, 망간, 아연, 셀레늄, 크롬, 구리, 망간, 아연, 셀레늄, 크롬, 구리, 망간

활성비타민 피로회복제-
아로나민 골드

• 흡수가 잘 되는 활성비타민 B1, B2, B6, B12, C, E, K, P, 판토텐산, 인산염, 칼슘, 마그네슘, 아연, 셀레늄, 크롬, 구리, 망간

비타민 C 1200mg
1일 2정이면 하루 섭취량으로 충분합니다

제품문의 080-022-1010(수선자투금) www.aronamin.com